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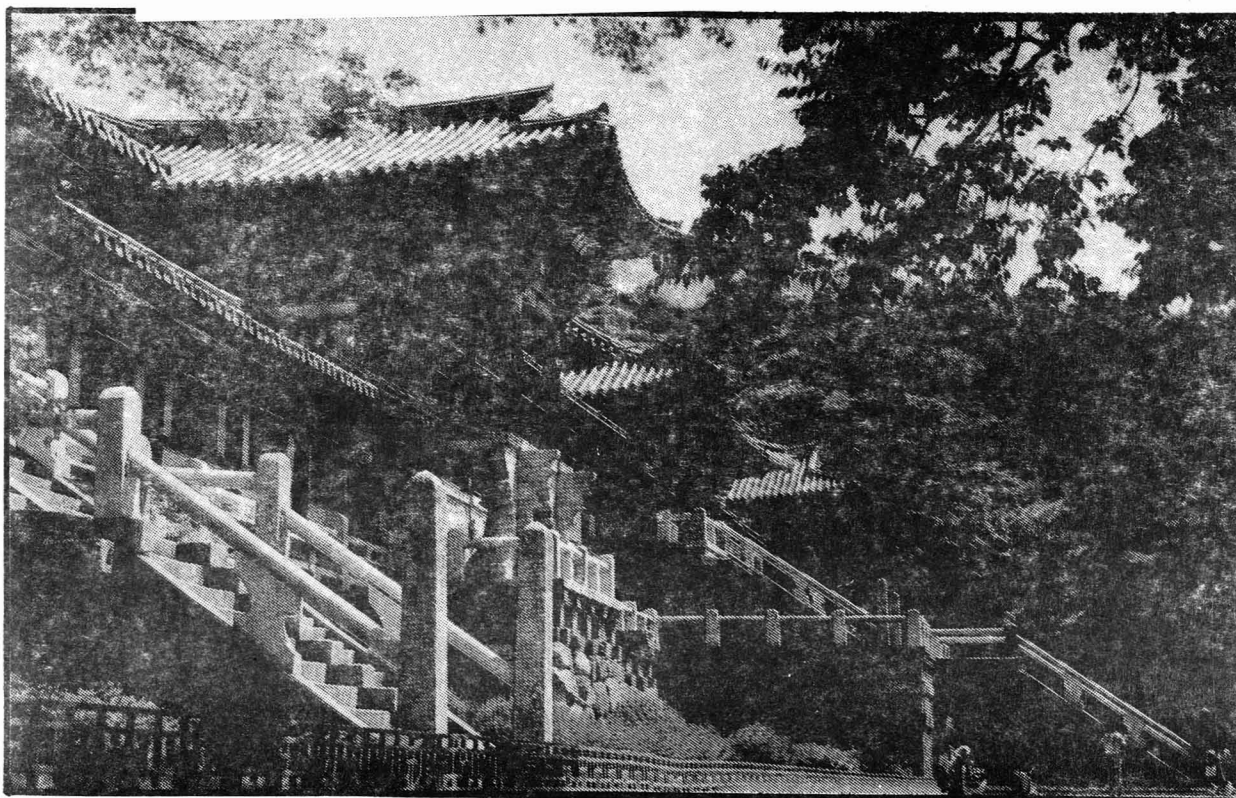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John K. Oh-Publisher  
Jae Hong Kim-Editor

Nov./Dec. 송년호,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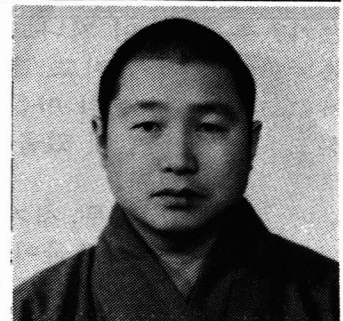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



서미사 주지 고일면 합장

목 차

- 마음의 기초공사
- 한해를 보내면서
- 생존과 경쟁
- (특집) 성공사례 제2화
- 한인회 동정
- 문답으로 알아본 생활상식
- 교민사회 동정 및 소식
- 침술의 효험
- 85년 행사 및 사업보고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진정한 의미의 국산품 애용
- (특집) 인터뷰 : 한인장로교회부설 한국학교 편
- 청소년 지도의 착안점
- 우리들의 모임 『시애틀 한인축구회』
- 앨러지 질환이란(?) 제2편
- 편집후기

이 세상 모든사람들은 건강하게 또 궁색스럽게 살기보다는 여유있는 부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또 높은자리에 앉아 의젓하게 살고 싶어 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꿈꾸는 그러한 부귀영화는 거리에서 혹은 우연히 누가 가져다 주는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옛말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다. 과실이 필요하고 따먹고 싶으면 나무부터 심으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즉 원인없는 결과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중에 너무나 많은 중생들은 원인없이, 나무를 심지 않고 그저 열매를 기다린다. 무척이나 인격적이고 꽤나 박식한것처럼 보이거나 너무나 많은 인간이 모두들 이러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한토막의 우화같은 짧은 이야기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옛날옛적에 한 마을에 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무식하기도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가 하루는 이웃동네에 갔다가 다른 부자가 으리으리한 3층 누각을 지어놓고 사는것을 보고 시원해 보였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자는 혼자 생각하기를 왜 저런 누각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단고? 하며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장 제일 훌륭한 목수들을 불렀다. 그리고 말하기를 『돈은 얼마든지 주마, 최소한저 누각보다 더 높은 더 화려한 누각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 물론 목수들은 승락했고 곧 공사를 시작했다. 목수들은 땅을 고르고 구멍이를 파고 돌을 깔고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한장씩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하는것을 지켜보던 부자노인은 그들을 향해 『자네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젠가? 도대체 어떤집을 짓고 있는젠가? 이게 3층 누각을 짓고 있는젠가?』 또 하는말이 이 답답한 멍청이 목수들아, 나는 저같은 3층 누

각이 짓고 싶지 그밑에(땅밑으로)1,2층은 필요없네 땅밑에 1,2층의 기초공사는 하지 말고 그저 3층 누각이 필요하다는 말이네. 목수들은 이말을 듣고 하는말이 아래층을 짓지않고 어찌 2층을 만들며 2층없이 어찌 3층을 만든단 말이요? 우리는 그런집을 지을수가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찌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인간은 살다가 보면 이런 3층집만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노력없이 나 자신을 모르고, 남이 하는것은 다하고 싶은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노력없이 내마음속에 기초공사도 없이 목적에만 눈이 어두어 헤메다가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괴로운 고통속에서 헤메이는 중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사람이나 누구라도 차분히 기초부터 다져가는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진짜 참 마음을 찾는것이 불교의 교리인만큼, 마음을 떠나서는 이 세상 무엇도 존재할 수 없으며 무엇도 할수가 없는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세상에 태어나셔서 첫 말씀으로 하신것이 『하늘위에나 하늘아래나 우리의 인간, 인간마음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아무리 우주공간의 허공이 크다고 한들 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이란것을 작게 가지면 바늘구멍보다도 작아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크게 가지면 엄청난 죄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게 또 마음이다. 또한 복과 덕 자비와 사랑을 만드는 공장은 있을수 없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두뇌는 발전해도 말이다.

복과 덕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만들수 있는곳은 우리들의 작은 마음뿐인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어떻게 가동해야 복과 덕 그리고 자비를 생산할 수 있겠

는가?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이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것 처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있을때 복과 덕의 싹이 트게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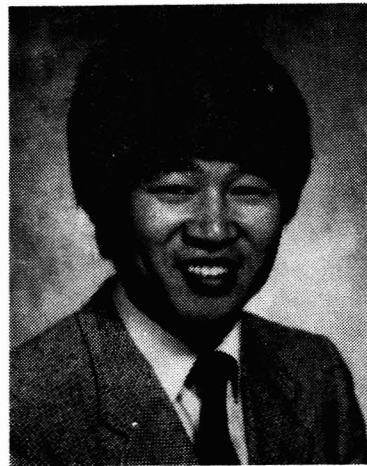
어떠한 원망, 질투, 시기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 그로인해 피로움이 생겼을때 복과 덕의 열매는 열을수가 없는것이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고통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내 진정한 마음으로 자비와 사

람의 기초공사를 다시 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마음에 기초공사없이 어떠한 기원과 기도로 어리석을 뿐이다. 부처님과 내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느님과 내마음이 둘이 아니고 허공과 내마음이 둘이 아니고 남과 내가 둘이 아닌...

생사가 없는 마음을 찾아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여기 서미사에 있는 소송에게 한번 찾아와 자신있게 보여주셨으면 한다.



### 강 성 국 에 퀴 터 블 보 험



그간 이렇게 많은 영광을 차지할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저희 에퀴터블 가족 및 교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신 IBM - AT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교민여러분의 재산 보호 및 재산증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노후대책 (세금공제혜택)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반드시 저에게 먼저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평생동안 지키고 키워 드리겠습니다.

- 1984 Million Dollar Round Table Member
- 1985 Winter Sampaign Agency Champion
- 1984 The President's Cabinet Member
- 1985 Spring Campaign ESF Champion
- 1984 Agency DSF Agent of the Year

#### The Equitable Financial Services

※ 남녀 AGENT 및 직원모집  
대출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저와함께 일하실 성실한분을 에퀴터블에서는 찾고있습니다. 전화 및 편지연락 바랍니다.

\* 대우 : 월급 + 커미션 + 각종보험혜택 + Professional Training

**475-5353 (Tacoma) ● 838-9218 (Seattle)**

**Tacoma Mall Office Bldg. #425  
P.O. Box 11309 ● Tacoma, WA 98411**

### 1985년 한해를 보내면서



시애틀 한인회 회장 오준걸

지난해를 보내는동안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리 교포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단합으로 Seattle 한인회는 발전일로의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할때에 교포여러분께 감사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1985년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던 한해라고 생각하며, 또한 과거와 같이 많은 교포들과 기관 및 단체등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실입니다. 한인회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교포사회의 융화단결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 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증거가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1985년도 한인회를 맡은 우리 임원진은 노력에 노력을 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렵고 고된일이 있어도 인내와 사랑으로 묵묵히 일을 수행할수 있었던 이들이야말로 우리교포들 사회의 모범이요,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해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행사와 사업을 치루워야 했던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곳사회의 교포들은 종으로 횡으로 긴밀한 유대속에서 일음하여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수 있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예로 장기연휴가 낀 한국의날 행사에 입추의 여지없는 초만원을 이루웠고, 3.1절 기념행사, 8.15 경축행사, 한인회장배쟁탈 축구대회, 그리고 Seattle-Vancouver 야유회 등의 많은 교포들의 참여를 들수 있으며, 행사와 사업을 할때마다 거두어 드리는 우승 Trophy나 상은 Seattle 한인사회를 위하여 분투노력한 여러분들의 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인회와 교포사회를 위하여 Image 부상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때에 우리 한인회와 교포사회를

좀더 알고 배우고저 하는 미국인들이 많았으며, 공적으로 Seattle 한인사회는 자치적으로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교포단체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자녀교육을 위하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헌신노력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수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교포들의 미국사회 참여도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할수 없었던점 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자랑인 2세들의 활동을 살펴볼때에 금년 여름에 실시한 하기 Camp, PAST 및 SAT Program 및 Sea-Fair Torch Parade 등이 이들이 잘해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기 Camp 를 통하여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사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자신의 위치를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알리므로써 긍지를 심어주고, 그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때에 타민족들과 같이 떳떳이 살아가는 방향설정을 하여줄때에 그들의 경각심과 자부심은 이 Camp로 하여금 얻은 큰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말고 일주일 더 이런 좋은 시간을 갖자고 간청하는 그들을 보는 우리는 더욱더 후세교육과 그들의 앞날을 밝힐 등대의 역할을 하여야만 하겠다는 중책감을 갖게되었습니다.

PAST(Preliminary Scholartic Aptitude Test)와 SAT(Scholartic Aptitude Test) Program을 통하여 명석한 우리의 자녀들의 두뇌를 발굴하여 이곳은 물론 전미국에 알리며, 이들로 하여금 우리한국을 널리 알리고, 조국과 미국을 위해 공헌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이 Program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SAT 강의에 심취하여 듣는 강의태도며, 이들의 열의에 호응하여 열의있는 감사들이며, 부모들의 뜨거운

성의며 이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좋은 공부를 시킬수 있었읍니다. 명년에는 한반을 더 증설하여 많은 교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기회를 주자고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ea-Fair Torch Parade 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은 SAT 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여러교회의 남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열의와 정열은 예상밖에 Drill Team 에서 2등의 영광을 가져와 이곳 Seattle 한인사회의 건재함과 우리 젊은이들의 화려한 고유의 의상과 발랄함을 이곳은 물론 전 Washington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최대의 절정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하등의 준비도 되지않은 여건속에서 용기일발하여 참여한 이 행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이요, 우리 온 교포들의 큰 결실이라 하겠읍니다.

이와같이 교포사회발전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헌신적 참여와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명년 한인회를 짊어지고 나아가신 박태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그의 임원들 및 모든이사에 대한 기대는 큰것입니다. 사회의 경륜이나, 그들의 과거에 보여준 봉사정신으로 보아도 좀더 발전하는 한인회를 이룩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년 한해를 맡아 일하실 이분들은 또다시 여러교포를 대표하여 막중한 짐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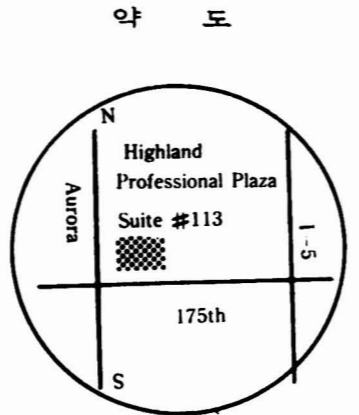
맞이하는 새해에도 교포여러분 가정위에 한없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간 많은 성원으로 교포사회와 한인회를 도우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성심의원 개업안내

내 과 - Internal Medicine  
일반의사과 - Family Pracitice

고혈압·당뇨병·알러지·심장병·호흡기  
방 광염·응급치료·암조기진단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실하게 일하실분 구함(사무직)



시간 : 월-금 10am~6pm, 토 10am~3pm  
전화 : (Bus) 542-7606(24 hours)  
(Res) 542-4257  
주소 : 1306 N 175th St, Suite 113 Seattle, WA 98133  
(76 주유소 뒤)

## 1985년 한해를 보내면서

### 부회장 박태호

금년은 어느해보다 어수선한 한해였던것 같다. 년초에 눈이 펄펄내리는데 한인회 사무실은 옮겨야 했다. 사무실 출입이 불편했으나 쓰이는 용도가 다양해 모두 좋게 생각했으며 많은 교포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Open House까지 성대히 했다고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사정에 의하여 6월15일 다시 사무실은 현재 사용중인 Greenwood Ave North와 125 Street에 위치한 000 학교로 옮겼다. 그러는중에 2월엔 제일교회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조찬기도회를 가졌으며 5월25일은 한국의 밤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또한 6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Youth Camp가, 8월2일 Sea-Fair Parade,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 그리고 Vancouver-Seattle 합동체육대회가 Woodland Park에서 잘 치루었다.

특히 금년에 큰 성과에 하나는 PST 여름 강좌를 교육부장이신 Mrs. Kay Mallws씨와 오계희박사의 수고로 수료한 것이다.

이외 각 분야에서 담당 부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만 금년 한인회 총책임자 오준걸 회장께서는 본인이 경영하는 설계사무실을 거의 Close 하다가피 하고 Tax 보고조차 못하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것 옆에서 보는 나는 마음이 안타까웠다.

능력이 부족한 내가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자의전 타의건수락하고 잘 Support 못하는데 미안함과 교포로부터 불평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부회장인 내가 오히려 잘 Support 못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우리 한인회가 우리 교포사회에 큰 도움을 줄수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교포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여하에 있습니다. 다같이 생업에 바쁜중엔 남잘때 덜자고 남이 가족과 즐길때 못즐기고 시간과 돈을 써가며 무엇인가 교포사회를 돕기위하여 봉사하겠다는것이 참으로 어렵다는것을 이해하시고 항상 관심있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동안 한인회에 봉사하다보니 전임 이사 임원 회장님들의 봉사하신 노고를 백분 이해하겠읍니다.

Federal way 에서부터 Everett Snohomish 까지 우리교포가 30,000이라 추측합니다. 그 추산에 반이라 가정하고 15,000에 한가구 5인가족이라면 3,000가구가 Tacoma를 제외한 Seattle을 중심으로 위성도시에 교포가 자리잡고 여러분야에서 고달프게 살아간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 교포사회는 이곳에 온지 오래되어 안정이 된 가정보다 여러가지로 정착이 덜된 교포가정을 위하여 한인회는 봉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정착이 된 교포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도와주셔야 하겠읍니다.

한인회에 봉사하는 이사 임원 역시 여러 교포분들과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며 자녀와 가정을 돌봐야 하며 또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간과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보다 학식이나 덕망이 많아 하는것 또한 아닙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모래, 자갈그릇에 시멘트와 물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한인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인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교포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im Portraitist**  
김윤곤 초상화 (인물화)  
YUNKON & JUDY KIM  
4747-30th Ave. N.E. #G152  
Seattle, WA 98105  
(206) 522-6829

**Allstate®**  
류창명 보험  
CODY CHANG RYU  
Agent  
Sears, Roebuck and Co. Building  
15711 Aurora Avenue North, Seattle, WA 98133  
Claims: 361-1000  
Bus. 364-2450 • Res. 362-2510

### 1985년 한해를 보내면서

총무부장 윤병설

저무는 소해년을 보내면서 지난 일년동안 과업성적을 채점하는 문턱에서의 생각을 하니 그저 허송의 세월이 아닌가 싫어진다.

처음 출발은 포부도, 의욕도, 치밀한 계획도, 실천행동을 강조도 하면서 하노라 했으나 결과는 모든것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느낀 공통점은 다같이 힘을 모으면 노력만큼 성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과 핵심을 재조명해 보면서 금년 임원들은 내년 임원진들에게 보다 원활한 업무진행으로 승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계속적인 한인회 참여의식에 뜻을 모아야 하리라고 본다. 금년 한인회에 뜻을 둔 교민제위께 깊은 감사드리며 명년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진들의 크신 노고와 헌신을 경하하면서 인사를 대신한다.

문화부장 박창모

한마디로 약방에 감초라면 어울릴까? 처음 3.1절 행사부터 마지막 아리랑의 밤까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매년 임원진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생각하면서 뛰었다.

일년동안 일하면서 생각되는것은 한인회 특히 밖에서 보는 한인회가 어떤것이었나? 제가 직접 한인회에 발을 들여 놓기전에는 과연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곳이며 무슨일을 하는곳인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모르는 생각이었다. 직접 뛰어보니 할일은 태산이요 막히는것은 시간과 자금이다. 뛰고 뛰고 밤도 새며... 한국의 날 행사를 끝내고 나서 다가오는 피곤, 퍼레이드를 끝내고 나서 뿌듯한 느낌... 그누가 알겠는가?

교민 어느분이라도 한번쯤 발을 들여놓고 이 뿌듯한 느낌을 맛보셨으면 한다. 새로 구성되는 새 임원진께서는 그저 뜨거운 봉사정신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임기후에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내가 할수있는 일이라면 돕고싶다.

## 서울옷집

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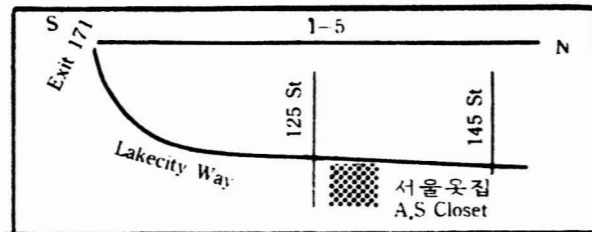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정성스런 **한국옷** 을 **한국** 에서 직수입하여 여러분께 공급코져 합니다. 교민여러분께 특별봉사코져 하오니 꼭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최귀임 배상 362-5055(B)  
362-8521(H)

**취급품목**

남여 신사복·원피스종류  
각종 아동복·스타킹·양말  
핸드백·지갑·악세사리등

**A,S Closet**  
12518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 생존과 경쟁

종로에서 맞은매 아직까지 눈을 흘겨서야

김동진목사(워싱턴 한인루터교회)

생물체가 살아가는 과정속에는 필히 두가지 여건이 뒤따르게 되는줄 안다. 하나는 생존의 시대요, 다른 하나는 공존의 시대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를 성장의 시대라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형성의 시대라 봄이 좋을 것이다. 어떤 생물체는 우선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누리고져 날으는 새들은 동지를 틀게되고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동물은 굴을 찾게된다. 일단은 한곳에 생존의 기틀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명을 연장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런 기본적인 기틀마저도 갖추워지지 아니 할때는 그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라 할찌라도 다른방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는 것이다. 하여간 갖추워져야할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여건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히 거쳐야할 필수적인 관문이라 하겠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될수는 없다. 우선은 우리도 생활안정을 이루려고 의식주의 기본과제를 항상 머리에 떠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공헌이란 기대키 어려울 뿐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살기에 바빠 한동안 먹고 입고, 쓰기에 급급하다보니 그저 기거하는 것으로만 그치고마는 그런때가 너무도 비일비재 했음을 본다.

어떤분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분은 10년으로 연장되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심하면 심지어는 일생을 두고두고 다람쥐 쳇바퀴만 맴돌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분들도 있다. 이것을 가르켜 세상만사가 다 자기뜻대로 안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또 그 능력마저도 다르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기간의 장단은 뒷전으로 돌린다쳐도 생존에 필요한 기반을 닦은연후에 가서 우리는 파

연 무엇을 할것인가고 할때 그때 그때부터는 인간만이 지날수 있는 문화의 유산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 『법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 이름이란 것이 서로 부르는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곧 위에서 말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유산을 총칭하는 뜻인줄 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일이 가능해질 것일까? 이질이 바로 우리 모두의 단결과 협조라 하겠다. 여기서 필자는 촛불의 예를 들고 싶다. 촛불에 불을 밝혀 사방을 비추려고 하면 십지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필히 파라핀이라는 원료가 심지를 불들어주는 집약된 점착적인 힘이 없다면 심지가 제대로 불어있지도 못할뿐 아니라 설사 심지가 성냥만 그어대면 타내려갈 만반의 준비로 만전을 기했다해도 심지자체가 희생을 거부한다면 그몸에 불을 담기게조차 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심지를 중심으로 파라핀은 파라핀대로 떠받드는 일을 해야 하며 심지는 또 심지대로 자기몸을 태워서까지 희생과 봉사의 각오가 되어있지 않는한 제구실을 다하는 촛불이 되어 온사방을 밝히기란 기대할수가 없다. 그러니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여기야말로 어떤 구심점을 이루워 공동이익을 위해 단합된 힘을 파시하여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알처럼 그냥 뽳뽳히 하나씩 맴돌아 세멘으로 개여진 그 미래로 큰 고층건물을 지을수 있는것처럼 그렇게 큰일을 해낼수는 없는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달리고 있음도 천왕을 중심으로 단합된 저들의 충성심이라 하겠다.

여기서 꼭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할일은 교민들의 일반적인 심성이 조국을 떠날때부터 무언가 그릇된 인식이 잘못 박혀 실은 떠나지 않아야 할분들이 일시적으로 『욕』

하는 심정으로 고국을 등진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개성이 강하고 억센 이유는 『내 노라』 하는분들이 많아 얼어죽어도 결불을 쪼이지 않는 강직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일단 발동이 걸리면 잘들 하나 발동이 걸리기까지가 그렇게 힘이 든 분이 많다. 저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들의 선입주견이 조국애로 인해 녹아내려야 한다.

사실 13년전만해도 나라일을 위해 일한다는 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흥정의 미끼로 삼았던 때가 있었음을 아는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심지어 공항을 돌아설때는 다시 그쪽으로 향해 침도 배지 않겠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옛 이야기뿐, 그래도 내가 태어나 내가 자란 곳 이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조국이라 생각하면 돌아누워침배는 사고부터가 말끔히 가져져야 되리라 믿는다.

이제 조국은 그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모든 면에서 쇄신되어 살기좋은 나라로 변했다하니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종로에서 매맞은것 굳이 이억만리 태평양을 건너 남의나라땅에 와서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공존의 대열에 서서 나도 이제는 조국의 번영을 위해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일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저멀리 나중으로 따돌릴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하나하나 눈앞에 있는 적은일부터 심어 나아간다면 한인사회의 일이 한인들의 협조와 단결심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만 사는길도 사는 길이겠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다같이 사는 길이어야만 정말 잘사는 길이라고 본다. 바라기는 생존의 길에서 공존의 길로 비약해야할때가 바로 이때라 본다면 그 집일이 내일이요, 내집일이 곧 그집일임을 깨달아 다같이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나은 한인사회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뿐이다. 항간에 한인회비만이라도 전부가 견혀진다면 한인회 운영은 거뜰히 해나갈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적은일부터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심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내과의사 개업안내

친애하는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동부 보스톤(Boston) 그리고 펜실배니아(Pennsylvania)에서 16년간 내과의로 봉사하다가 이곳 시애틀에 이사온 김선중 이 삼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26년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포 제현 가정에 가정의사로서 믿고 찾아주실수 있는 의사의 사명을 다하여 성심 성의껏 인술을 봉사코저 아래와 같이 개업안내를 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 서울 국립 경찰병원

서울 철도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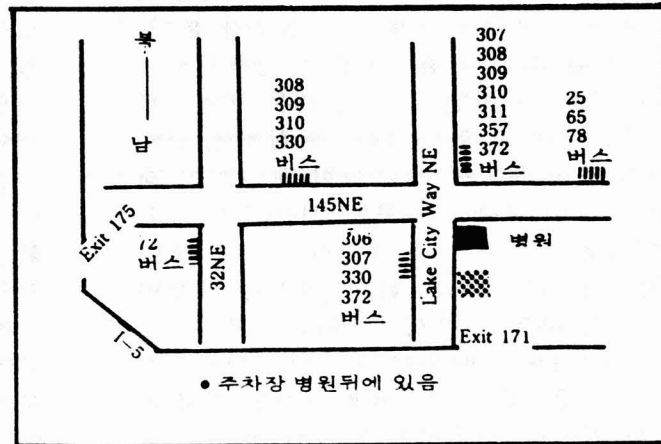
외과전문의 10년

미국 TUFFS University, Nfnew England Medical Center, Boston 암(Cancer)전문의 4년

미국 펜실배니아 일반내과(Family Doctor)12년

김선중 삼가 드림

주소 : Sun Choong Kim  
14322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사무실 : 365-7327  
집 : 742-9162



## 성공사례담 제2화

고봉식(와싱턴주 상공회의소 이사장  
현 케이비버리지 대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그저 내 할일은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늘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하려고 할때 도움도 주고 기회도 준다는 말입니다. 같은말로써 『구하는자에게 얻어진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그랬듯이 정확하게 7년전 부모형제를 뒤희하고 미국 이민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과거 한두번 회사출장관계로 미국 한두 도시를 다녀간 경험은 있었으나 가족을 동반하고 이민가방을 들고 미국땅에 도착했을때는 황홀하고 아름답기보다는 그저 넓은땅에서 어떻게 발을 붙여 내가 또 내식구가 살아가느냐고 생각하며 담담하기만 했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LA에 막상 도착하니 한국인들도 많고 무엇인가 생기가 도는 느낌은 있었으나 혼잡하고 시끄럽고 내 작은마음을 정돈하고 작은설계를 펴기에는 적당치 않아 뉴욕으로 갔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내와 같이 생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철공소에서 소위 바느질공장에서 서클프기도(?)한 이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임금은 둘째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채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내는 쏘임머신에 손이 질려 몇일씩 쉬기도 했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 남의집 할머니 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누구나가 한번쯤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고 생각되어 자랑도 아니고 고생담도 아닌것 같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녀오고난 다음 아내와 이마를 맞대고 생각에 생각을 하며 밤을 새운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생활에 맞지를 않아』 『돌아가야해』 번민에 번민으로 여러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나의 미국이민 소식을 들은 시애틀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반갑다는 인사조차 잊은채 『나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겠

느냐』는 그저 막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의 그저 막연한 말에 『참고 견디라』 『조급하게 서둘면 미국에서는 살수가 없다』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려울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달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우리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미한 전등불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목적없이 허락된 하루 24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한달후 시애틀에 산다는 친구만을 믿고 그저 막연하게 가족들을 태우고 간단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채 눈이 녹지도 않은 12월 어느날 뉴욕에서 출발, 빙판을 달리기도 했고 스키아닌 운전으로 록키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내가 가지고온 돈 15,000불중 그간 차도 사고 생활비로 쓰고해서 남은돈 12,000불을 가지고 친구와 같이 조그만 식품점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크고 작건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도 안되고 더구나 손님과의 의사소통할때는 정말 머리를 치면서 괴로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괴로운것은 세무서등에서 전화상으로 사업내용을 묻는 전화는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떤때는 아예 전화코드를 뽑아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소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남보다 서너시간 먼저 문을 열고 남보다 몇시간 늦게 문을 닫고 한가한 시간에는 닦고 청소하고 그저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작은 체험을 했고 철학을 배울수 있었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고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성실하고 열심으로 정성을 다할때 하느님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자그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좀더 큰 식품점으로 또 좀더 큰 세탁소로 전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젠 나의 작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한국식인 사고방식(운영방식)과 미국인 운영방식을 잘 혼합하면 무엇인가 이룰수가 있다고 장담하고 그 간 느낀 소위 미국식 스토아 운영방식과 한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상식을 종합하여 지금의 소위 나의 생명줄인 『케이 비버리지 스토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업체인 비버리지 스토아는 미국인이 운영하던 스토아로 나름대로 규모는 있었으나 무엇인가의 문제점으로 매월 엄청난 적자를 보는것을 한달이상이나 그곳에 체류하면서 연구분석... 마침내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 당시 고용인 12명 월세 6,000불의 가게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으나 앞에서 말했듯이 열심과 정성, 또 한국식 운영방식과 미국식 운영방식을 혼합하여 그들(고용인)을 내식구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시간이 4~5년 지난 지금 스토아는 벌써 적자를 넘어 작지않은 흑자사업이 되었고 고용인도 당시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타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었으며 본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와싱턴주 상공회의소의 이사장이란 직분도 얻을수 있었습니다.

7년이란 미국 이민생활, 기억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그저 우리 존경하는 교민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맡겨진 책임,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면 길이 열린다고 확실히 장담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각박한 상황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어 사업이나 어떤 구상에서 미국인들의 생각(구상)을 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실 때 한국식 운영방식과 미국식 운영방식을 잘 혼합하면 또 거기에도 한국인의 특성인 열성을 같이한다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나름대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사항으로는 사업을 시작할때 타산성이 좋은 수지계산서만 보고 시작할게 아니라 잘안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체를 연구 분석하면 그 문제점을 찾기만 하면 사업체를 싸게도 살수 있고... 넷째, 사업을 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한 이익금을 중간에서 뽑아 매출액(외형거래액)을 줄이지말고 그 업종의 규모를 늘리는데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을 중간에서 뽑아내고 하다보면 매출액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계표를 분석하면 그 사업체는 그저 현상유지되는 사업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재투자 또 재투자 할때 매출은 늘어나고 사업체 평가금액도 높아진다. 나의 경우 재투자 재투자를 반복하여 신용사회인 미국에서 불과 4~5년의 경험으로 나의 사업능력을 높이 평가받았고 많은 돈의 용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성공사례담』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온 방법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의 각오는 지금도 쉬지않고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고객을 접대하며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작은 보람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신 시애틀 8인동지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 심재환 시보레 자동차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63 - 6110 (B)  
365 - 9343 (H)  
David. Shim

### 홍 인 표

신경, 정신과 전문의

(206) 587-5747·3748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 한인회 동정

#### 1. 8.15. 광복절행사 실시

지난 8월 15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 소운동장에서 조촐하게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됐으며 1부에는 총영사, 한인회장의 경축사 등이 있었고 김성묵목사의 당시 회고담도 있었다. 2부에서는 유대식박사의 『한인이민사록 준비를 하면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고 또한 해마다 한인학생 장학금 재단인 Muscanto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기도 했으며 행사를 마치고 본국 홍보사진 전시회 및 다과회도 가졌다.

#### 2. Sea-Van 친선체육대회 개최

연례행사의 하나인 시애틀과 밴쿠버(캐나다)간의 친선방문 야유회 및 체육대회가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 『우드랜드파크』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금년은 밴쿠버에서 시애틀을 방문하여 가지는 친선체육대회 및 야유회로서 약 100여명이 밴쿠버에서 친선방문 약 5시간에 걸친 각종 경기와 친목을 위한 야유회를 가졌는데 이러한 행사는 시애틀과 밴쿠버간의 교민 유대를 강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내년에는 시애틀에서 밴쿠버를 방문, 그곳에서 친선을 가지기로 약속하며 하루의 일정을 마쳤다.

#### 3. Muscanto 장학생 모집

한인회 Muscanto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는 금년도 Muscanto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코져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1)신청마감일 : 11월 8일(금요일) 오후 4시
- 2)신청서류 : ○현학년도까지의 누계성적  
○2통의 추천서  
○교내 및 교외활동사항 설명서  
○영문으로 된 Essay 『나는 교포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및 증빙서류
- 3)신청서류배부 : Seattle, WA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또는 641-5739(한만섭 이사장)  
455-9571(오준걸회장)
- 4)선발자발표 : 11월 16일(일간신문)

#### 4. 아리랑의 밤

금년도 한인회 주관 『아리랑의 밤』은 다음과 같이 행사일정을 결정하고 시행코져 하오니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많은 교민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2월 28일(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Mountainer Club  
약도 : 추후 게시될 포스타 참조(각 한인업소에 부착예정)  
입장권구매 : 입장권은 1인 15불이며 예매가능하며 각 한인업소에서 판매예정이며 당일 현지 구입도 가능함.  
문의처 : 455-9571(오준걸회장)

#### 5. 한인회 총회 공고

85년 정기 한인회 총회모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장 소 : 한인회관 소강당  
일 정 : 11월 16일(토요일)  
회의내용 : 신입회장 선임 발표 및 업무보고 등(추후 일간지 신문에 공고예정임)

#### 6. 시민권취득을 위한 특별강좌

한인회에서는 많은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권 취득 특별강좌』를 재개설코져 하오니 관심있는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강 사 : 김현중 선생  
강의료 : 무료  
장소및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시간 일요일 오후시간을 이용 1일 2시간정도 1개월정도의 기간으로 할 계획이며 강의를 원하는분은 12월 31일까지 한인회 및 편집담당자(365-4686) 또는 담당강사 김현중씨(774-38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 타 : 강의를 원하시는분은 최소한 7~10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 상기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시간 가능하면(강사)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Open 할수도 있음.

### 문답으로 알아본 생활상식

(질의)

부동산 투자외에 증권·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의 이점과 어떤종류의 투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답)

지난해부터 은행이자율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3.5%가 더 내려갔고 은행의 머니마켓의 이자율도 3%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적인 은행이자보다는 여유있는 돈이 있으면 정부채권(Government Securities) 같은것을 은행에 예금하시면 언제든지 확정환률로 (지금같은 경우 계속해서 12 1/4%) 받을수 있으며 아무런 차지없이 찾을수 있습니다. 또 (Municipal Bonds) 주정부 발행 채권을 들수 있는데 은행예금과 같이 안전하며 Tax 보고때 은행이자율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기도 하며 또한 아무때나 차지없이 찾을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Prudential-Bache 같은곳에서는 호텔·아파트나 모텔 회사건물을 사서 운영하고 싶으나 돈이 모자라는 경우 10%의 돈만 부담하고 90%는 회사에서 내서 동업을 하는데 이때 운영은 전문운영회사가 맡아서 운영하며 운영에서 얻어진 이익을 동업자관계로 분배하므로 소자본으로 큰회사운영에 참여하여 운영전문인에 의한 운영이익금을 분배받는 방법이기도 하며 물론 세금의 혜택을 드리는 Tax Shelter 프로그램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최경수 (Prudential-Bache 근무)

(질의)

38세의 남자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부터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고 조금 무순일에 특히 사무적인 일에 신경을 쓰다보면 뒷머리가 아프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했지만 아무이상 없었다고 하는데 체중이 줄고 항상 얼굴에 피곤이 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세인지요?

(응답)

고혈압의 합병증세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작은 동맥의 이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인데 대동맥의 탄력성의 상실과 관계가 있으며 단한번의 치료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혈압이 높아지

는 것은 괜찮은데 38세의 나이로 혈압이 높다는것은 치료를 요합니다. 치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합병증 이전의 증세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반상식으로는 고혈압은 중풍증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뿐만아니라 심장병, 맹인, 위장병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로는 담배나 술이 해롭습니다. 담배와 술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중 (김선중 내과 원장)

(질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이나 여러곳에서 SAT나 PAST나 하는말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응답)

대학교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 SAT, PAST, WPC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입니다. PAST는 본래 Pre-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소위 SAT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꼭 택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PAST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때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로서 워싱턴주 밖에 있는(타주) 대학에 갈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택해야 하는 시험이기도 하지요. SAT는 Scholarship을 받기 위해서 또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Scholarship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지요.

또한 WPC는 Washington Pre-college Test의 말로서 워싱턴주 아니면 타주 대학을 가는 사람 누구나가 택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워싱턴주내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WPC만 택하고 SAT는 꼭 안해도 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시험은 대학에 입학할 때 절대로 참작이 됩니다. 이 시험들은 또 자기의 성적의 정도 및 어느 전공학을 택하느냐의 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내용은 학교(고등학교) 상담실에 문의하면 시험장소와 시험날자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신하신분 김정욱(U,W 1학년)

(질의)

운전중 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에 보고 요령 및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응답)

도로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났을때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또 사고시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하지 말고 빨리 경찰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경찰에 알리는것이 항상 요구되는것은 아니지만 워싱턴주에서는 300불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시 경찰보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나에게 피해가 있을때는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알아내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에 의해 소송을 당했을때에는 보험회사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일절의 서류를 보내야하며 사건해결은 나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등에 일임하여 대신 응해줍니다. 또 한가지 경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할때 당시 상황설명은 물론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의 성명, 사건번호, 어느소속의 경찰인지를 꼭 알아두어야 할것입니다.

류창명 (올 스테이트 류보험)

(질의)

미국에 이민온지 5년된 자로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잔여재산(부동산)을 처분코져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또 본국에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분할 방법은 없는지요?

(응답)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소유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이전절차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면은 아래와 같음.

- 1)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대법원 고유양식)
-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매도서류)
-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구 권리증)
- 4)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5)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6)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나. 외국시민권자가 귀국하여 국내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 1)장기체류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실하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조 1항에 의한 재외공관에서의 인감

위임장 확인을 받을수 없으며 인감증명법 제3조 3항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 등록을 한 시, 구, 읍, 면에 인감을 신고하고 이에 기한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됨.

2)단기체류의 경우

인감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인감증명 없이 위 이전등기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만 하면 됨.

다. 외국시민권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 취득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권한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을 송부하여 그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위 이전등기신청을 하면됨. 이때 위 1항의 서면중

○등기신청서 1)은 국내대리인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

○원인증서 2)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할 수 있음.

○등기권리증 3)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위임장 4)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동 위임의 취지가 기재되고 위임인이 서명한 서면이면 족하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득하여야 함.

○거주증명서면 5)은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거주 관공서의 주거증명 내지 주거사실 증명으로 같음할 수 있음.(단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사실을 공증받아 동 공증증서로서 대체 사용할 수 있음)

○인감증명 6)에 있어서는 날인제도가 없는 국적취득자는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나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국 공관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함.

○이밖에 토지소유자가 외국 국적취득으로 인하여 서명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전성의 성명(등기부상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외국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위 각서류

가 4) 5) 6)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함.

(주 시애틀 워싱턴주 총영사관 제공)  
(질의)

세살난 딸아이가 있는데 생후 4~5개월 되면서 갑자기 귀부분, 손등, 머리등에 빨간 부위를 나타내며 심한 부스럼이 나서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하고 연고를 발랐더니 금방 나았는데 최근 또 그런증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겨울철에 간혹 나타나는데 완전치료방법은 없는지요?

(응답)

따님의 증상으로 보아서 알러지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지성 피부염은 대부분

생후 2개월~3개월에 시작되며 양쪽 뺨이나 이마 혹은 귀주위에 건성 피부염을 일으켜서 붉은 반점과 같은 부스럼증세를 나타내며 몹시 가려운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굽안쪽이나 손목, 손등 혹은 무릎뒷쪽에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한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4세~5세에 자연 치유되는 질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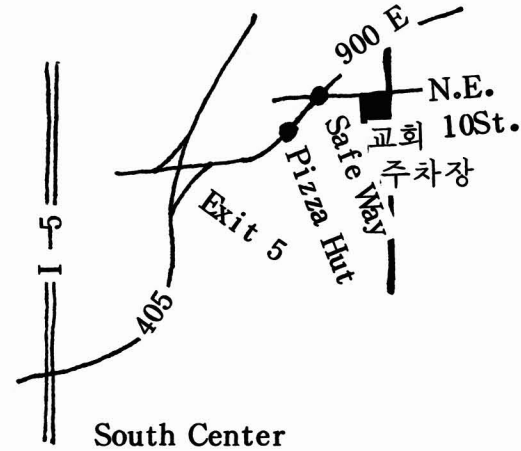
알러지성 피부염외에 여러가지 흡사한 피부질환들이 있기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에 의뢰하여서 원인규명과 정확한 치료 및 합병증 방지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백기완)



### 렌톤 한인장로교회

Ren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3031 NE 10th Street  
Renton WA 98056



주일예배 : 오전 11시  
토요성경연구 : 저녁 7시  
교회학교 : 오전 11시  
한글학교 : 11시 45분  
담임 : 백 세 현 전도사  
워싱턴 신학대학원 졸업  
한의사 (C.A.) (1977년)  
연세교육대학원 (1974년)  
서울대학교 (1968년)  
전화 : 546 - 3594

## 증권투자상담

교포 여러분!

증권, 금, 스타웬손, 부동산 및 (IRA, TAX FREE INCOME) 등 제반 투자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Prudential-Bache 에서 15년간 일해온 『최경수』에게 미국 어느곳에서나 코렉트 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Ken Chai 미국명  
(Vice President-Investment)

(206) 223-2548  
Out of state: 1-800-426-0618  
Washington: 1-800-542-0708

Follow a leader

Prudential-Bache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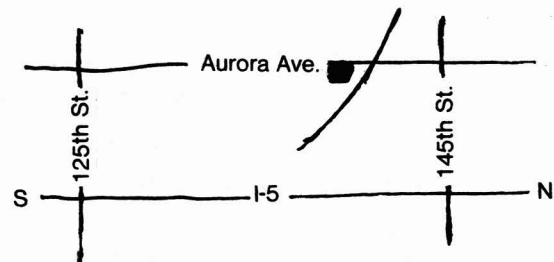
## 청도식당

### 순한국식 중화요리

- \* 한국인의 입맛을 아는 .....
- \* 수타국수 전문은 .....역시 『청도』지요

성의껏 여러분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OPEN HOURS:  
SUN: 1 p.m.-10 p.m.  
MON: Closed  
TUE-THUR: 12 noon-10 p.m.  
FRI-SAT: 12 noon-11 p.m.



13744 Aurora N.  
Seattle, WA 98133  
Tel: 367-9339

한국에서 믿어가는  
한국화장품(주)  
로스앤젤레스지사



### 신비의 초록, 피부의 젊음.

에스티 크리어로 태양의 자욕을 지워주세요.

이제 뜨거운 태양도 조금씩 식어가고 가을을 향하는 계절의 문턱에서 여름동안 무너져와 강한 자외선에 지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지쳤어 있습니다. 피부위에 여름이 남겨놓은 계절의 자욕을 깨끗이 지워주고 다시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을을 맞이하세요. 「슈단학 에스티 크리어 화장품」 지금부터 30일 에스티 크리어로 맑고 싱그러운 피부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신비 초록의 화장품으로서 피로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맑고 싱그러운 피부로 빨리 회복시켜 줍니다.  
신비의 천연감축으로 피부에 신선한 활력을 부여하는 영양분으로서 항상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자외선이나 공해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의심성 화장품  
슈단학  
에스티

미국속에 아름다움을 심겠습니다.  
슈단학에스티크리어 화장품

한국화장품(주) LA지사 설립과 함께 이 지역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례드릴 판매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GOLDWELL PLAZA, #104, 2520W. 8TH STREET, L.A., CA 90057 TEL. (213)385-9292, 381-1788.

# 축구회 명칭개정 및 회원모집안내

그간 북부 씨아틀 한인축구회를 위해 성원을 해주신 회원 및 가족 그리고 축구 동호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5년 7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명칭을 개정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입회코져 하는 축구동호인들의 여망에 부응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1. 명칭개정 : 1985년 7월 1일자  
북부씨아틀 한인축구회에서 씨아틀 한인축구회로개명함
- 2. 회원모집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축구동호인  
㉡연령제한 없음
- 3. 연 락 처 : 헤드럴웨이 : 838 - 2760 : 광지영  
씨 아 틀 : 363 - 6110 : 심재환  
씨 아 틀 : 774 - 4103 : 제일식품  
린 우 드 : 776 - 3441 : 변희철  
벨 부 유 : 746 - 7723 : 황보경호  
에 베 렛 : 252 - 6744 : 심상국

씨아틀 한인축구회 회장 심 상 국

#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 취임식 공고

씨아틀 한인축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과 아울러 85년 망년회를 가질 예정이옵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시 : 1985년 12월 7일 (토) 오후 7시
- 장소 : 린우드 B. B. Q.
- 안건 :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 취임식, 망년회

씨아틀 한인축구회 회장 심 상 국

# 교민동정 및 소식

## 1. 시애틀 한인축구회 『경노잔치』 벌여

지난 9월7일 시애틀 한인축구회 주관으로 시애틀 남쪽에 있는 링컨공원에서 지역내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노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경노잔치에는 2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 푸짐한 음식과 장기자랑, 소운동회 등 즐거운 하루를 가지기도 했으며 이날 참석한 총영사께서는 『바로 여러분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2세,3세가 바로 지금 과감하게 미국사회 각분야에 참여할때가 됐으며 또 우리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미래에 도전하자』고 격려했으며 이보화 경노회장께서는 젊은이들의 정성에 감사하며 『우리는 과연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며 살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2. 성심의원 개업

지난 10월15일자로 오토라 175가에 성심의원 개업을 했던 원장 김순희씨는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수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고 시카고 일반내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시애틀 교민여러분의 건강을 상담, 진료코져 병원문을 열었다. 성심껏 여러 교민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함. 원장 김순희 542-7606, 7607

## 3. 나사렛 한글학교 개강

시애틀 제일나사렛 교회에서는 지난달 교회내의 부설기관으로 2세들의 한글학교를 개강했다. 정규교원자격을 취득한 강사진으로 구성, 특히 교과목으로 한글외 한글동요, 한국의 얼 등을 가르친다고

하며 풍부한 교재 및 부교재를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함. 8600 9th Ave SW Seattle, WA 98106 (시애틀 제일나사렛교회 내)

## 4. 불교설법회 윤월화스님의 『선』

타코마소재 사찰 서미사(주지 : 고일면)에서는 오는 10월27일부터 약 한달간 불교설법회를 가질 예정이며 강사는 현재 통도사의 윤월화스님으로 『참선』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한다. 문의처 215 E 72nd St Tacoma, WA 98404 주지 고일면

## 5. 입양고아 Work Shop 실시

한국 입양고아들을 가진 부모들의 Work Shop 이 지난 10월19일 쇼라인 커뮤니티 카리지에서 있었다. 이날 Work Shop에는 300명이 넘는 많은 입양부모들이 참석. 상황을 이루었으며 이날 주최측인 KIDS (Korean Identification Society)의 디렉터인 샌디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개회사에서 안총영사는 19세기 말부터 직접 간접으로 한국의 개화를 도와준것에 감사하며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으며 초청연사로 나온 신호범씨는 한국의 윤리등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자기도 한국의 입양고아임을 밝히며 지금도 양부모에게 항상 감사한다고도 했다.

## 6.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발족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가 발족했다. 지난 10월12일 시내 영미정에서 모인 30여명의 워싱턴주내 그로서리업자들은 새로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를 창설, 초대회장에 성동민씨를 이사장에 윤광남씨를 감사에 정병국씨를 각각 추대했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서로간의 경쟁을 없애고 공존을 원칙으로 할것』이며 나아가서 공동구매로 상호이익증대를 논하기도 했다. 임시연락처 272-4751

## 7. 서울옷집 신장개업

Lakecity way 125가에 새로 『서울옷집』을 신장개업했다. 교민 최귀임씨는 지난달 말 A's Closet 을 인수, 한국에서 직수입한 유행에 앞서가는 정성스런 한국옷을 여러분께 봉사하겠다고 함. 특히 아동복, 숙녀복을 특별가적으로 제공할것이라고 함. 최귀임 362-5055

8. 워싱턴주 태권도 챔피언 쟁탈전

지난 9월28일 페더럴웨이 에 있는 디케이 터 하이스쿨에서 워싱턴주 제2회 태권도 챔피언십이 열렸다. 워싱턴주 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대회는 전례없는 많은 선수가 참가, 또한 주최측의 짜임새있는 진행에 많은 참관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약 15개의 태권도장이 있으며 1천300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기도 하다.

9. 롯데식품 그랜드 오픈

지난 9월28일 교민 조진기씨는 웨더럴웨이 에 롯데 종합식품점을 신장개업했다. 전에 현대식품을 경영하기도 했던 조진기씨는 지난번의 경험과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식품외에 선물센터·비디오테이프·서적등을 구비해 한국전문점으로 확장 개업했다. 조진기 941-8353

10. 김윤곤 초상화 연구실

교민 김윤곤씨는 지난달 『김윤곤 초상화 연구실』을 개장, 교민에게 초상화는 물론 각종 그림을 교민에게 제작 제공하겠다고 함. 김윤곤 522-6829

11. 김선중 내과 개원

Lakecity way 145가에 내과전문의 김선중 내과의원이 지난달 8월15일 새로 개업을 하고 교민들의 건강을 진단·진료를 시작했다. 김선중 내과전문의는 암, 고혈압, 소화기 계통의 전문의로서 교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다고 함. 김선중 365-7327

12. 입양아잔치 성대히 벌여

지난 11월2일 오후 3시부터 약 세시간동안 Jane Adams School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입양아 및 입양아의 부모를 위한 잔치가 『시애틀 한인장로교회』주최로 성대하게 치뤄졌다. 이 잔치는 1·2·3부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날 특히 총영사,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나게 했으며, 고전무용, 태권도 시범은 한국을 인식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날 입양아 『수잔』양의 부모로 참석한 Bill씨 내외는 휠체어를 타고 같이온 수잔양을 소개하며 수잔(생후 3개월에 불구아동(소아마비)으로 입양, 오늘 14세가 되었다고 함)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온갖 시중을 다들었다. Bill씨는 한국에서만 5명의 신체장애자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워오고 있다고 하며, 이것만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여 같이 참석한 다른 입양부모 및 이 장면을 본 교민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12. 청소년을 위한 연합부흥회 실시

시애틀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는 100주년 선교 기념행사의 마지막 행사의 하나로 청소년을 위한 연합 부흥회를 가졌다. 지난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소망교회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던 연합부흥회에서는 강사 김기성목사를 모시고 『청소년의 변화』라는 주제로 부흥회 모임을 가졌다. 청소년을 위한 연합부흥회로서 이번이 처음이기도 했다.

침술의 효험

침구사 황병조

우리들 아주 어릴때 『이놈 말안들으면 침준다』는 말이 있었고 또 무척이나 무서웁게 들어왔다. 과연 침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대로 적어보려고 한다.

우리몸에는 피가 흘러다니는 혈관이 있고 임파액이 흘러다니는 임파관이 있는가 하면 모든 느낌을 전달하는 중요한 신경이 있다. 혈관도 아니고 임파관도 아닌 또 신경도 아닌 신비한 제4의 선이 있는바 이것이 경락이라는 한방 침술의 신비의 선이다.

이 경락은 우리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기)이 흘러나오는 길이기도 하고 흘러다니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인체에는 14개의 경락이 있는바 이 경락은 모두 오장육부와 신경, 뇌 등 내부기관 전체와도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으며 또 각 경락마다 신체외부로 나와있는 많은 점들이 있는것이다.

위에서 말한 그점들이 소위 침을 놓을수 있는곳이기도 하다. 한방에서 『혈』이라고 하는것이며 그 혈에 어떠한 자극을 주면 인체내부의 각 장기에 영향을 주어서 이상이 있던 장기가 순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바 이것이 질환치료의 효험이요 비법이라고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어렸을적 오래전부터... 음식을 먹고 체했을때 이웃집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사관에 침을 놓아준다. 신비하게도 검은 피를 보이면서 불과 몇분내로 체기가 내려가는것을 우리는 보기도 했고 또 실지로 체험을 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인체내의 한 지점의 경락에 자극을 줌으로서 인체내부가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한방의 비법이다.

흔히들 한방에서는 일침·이구·삼약 이라고 한다. 이말은 우리인체에 이상이 생긴경우 제일먼저 침으로, 두번째로 뜸, 세번째로 약이라고 하는말이다. 우선 침에 대하여

잠간 설명코져 한다. 위에서 말했지만 한방에서 제일 기본이며 효능이 빠른것은 침이다. 이말은 효과가 빠르다는 말도 될수있다.

특히, 양의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지못하는 병... 아무리 여러가지 검사 및 컴퓨터 검사를 해도 정상인데 본인은 아프거나 이상을 느낄때 이때는 침으로 찾을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큰 고통도 없이 질병을 찾아 치료도 할수 있는것이다.

한예로 얼마전 만성위장병 환자를 맞아 상담을 하고 단시일내에 완전하게 약 한첩 쓰지않고 단지 4~5회의 침술로 고친적이 있다. 환자와의 상담에서 병원에를 수차례 다녔고 수십가지 검사를 마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끼정도의 죽만을 먹는 만성위장병 환자였었다고하며 병원 약국에서 주는 소화제는 먹기만 하면 속이 더 쓰렸다는 말도 했었다. 물론 양의나 양약이 잘못됐다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 한의에서 특히 침술로 빨리 발견도 하고 쉽게 치료도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이 볼수 있으며 또 주위에서 실지로 한방으로(침) 치료되는 사례를 볼수 있다. 동양의 침술은 오래전부터 유래되어 차츰 과학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져 오늘날은 양의의 발전에 버금가는 발전을 거듭,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 다루며 연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침으로 치료함으로써 빠른 효능을 얻을수 있는 질환으로는 위장병, 견비통, 요통, 관절염, 만성두통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천분지 일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하여 부족한 제가 감히 침술을 이야기 했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양 태 승

OVER NIGHT PRINTING CO.  
교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일 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1025 Stewart.St.  
Seattle, WA 98101 621 - 9412 양태승

LEE'S 서비스 센터

(전기시설, 가전용 전자제품 수리전문)  
771-5728 (24HR)  
이 옹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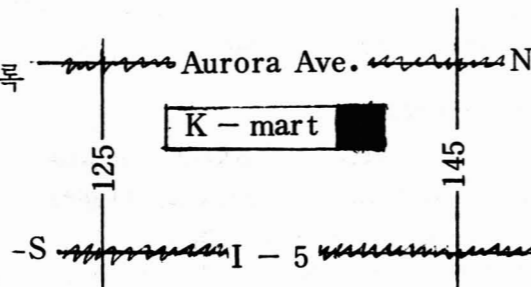
아로라식품

아로라 165가 점포가 전소, 다시 125가 K-mart 상가내에 다시 개업토록 성원해 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 명 배상

※ 신선한식품. 신선한가격. 신선한 분위기  
신선, 신선은 오직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 362 - 5575 (Aurora Ave. 125th St. N. K-mart 상가내)



### 85년도 행사 및 사업보고서

- |  |                                    |
|--|------------------------------------|
| 1월 3일 전회장단으로부터 업무인수                        | 6월 5일 한인회주최 SAT&PAST 프로그램 계획       |
| 5일 임원회 개최                                  | 15일 한인회 사무실 이전(현장소로)               |
| 1)신년인사차 시애틀시장 방문, 경찰서 방문, 주지사 방문 계획 수립     | 19일 청소년 Camp 실시(3일간)               |
| 2)한국의날 행사계획                                | 22일 한인회장배 쟁탈 축구대회                  |
| 3)임원월례회 일시 확정(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시)             | 7월 18일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                 |
| 4)한인주소록 발간계획                               | Sea-Van 양도시 친선야유회 준비위원 구성          |
| 5)한인회 상주직원 채용 추진계획                         | SAT&PAST 프로그램 진행(7월 5일-8월 12일)     |
| 11일 85년도 행사계획 수립                           | 8월 2일 Sea-Fair 행사 실시               |
| 19일 한인회 신년시무 하베식 및 Open House              | 9일 86년도 선관위원 위촉논의                  |
| 25일 예산안작성 및 행사계획표 작성                       | 15일 8.15 광복절 기념행사                  |
| 2월 9일 한인회주최 조찬 기도회(시애틀 제일장로교회당)            | 15일 머스칸토 장학금 전달식                   |
| 15일 금년도 행사계획 수정통과                          | 15일 전대통령 방미 사진전시회                  |
| 15일 작년 예산집행 재검토 및 금년예산안 수정통과               | 18일 광복절 기념 타코마 한인회장배 쟁탈 축구대회 출전 우승 |
| 3월 2일 3.1절 기념행사 및 영화상영                     | 24일 Sea-Van 친선야유회 개최               |
| 2일 한국의날 행사 준비위원 구성                         | 9월 86년도 선거관리위원 임명 발표               |
| 4월 30일 오준걸회장 LA 촬영(전대통령 방미 LA 환영식 참석) 결과보고 | 머스칸토 장학생 선발요령 공고                   |
| 30일 한국의날 행사 VIP 초청대상 선정                    | 10월 11일 86년도 회장단 및 이사 추천논의         |
| 5월 11일 한국의날 행사 세부토의                        | 11일 85년도 한인회 유공자 감사장 수여논의          |
| 11일 한미 TV 인터뷰 결정                           | 25일 85년도 총회보고서 작성준비                |
| 11일 청소년 Camp Program 계획                    | 25일 아리랑의 밤 행사준비 및 계획               |
| 17일 회장배 쟁탈 축구대회 계획                         | 11월 1일 85년도 한인회 정기총회공고             |
| 25일 한국의날 행사                                | 11일 머스칸토 장학생 선발공고                  |
|  | 23일 85년도 한인회 정기총회 개최               |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8월 1일 이후 10월 까지)

강동언	20불	O, Soo D	20불
김진숙	15불	Yang Seung Ham	20불
고봉식	50불	Kim Chun Yong	20불
오로라식품	50불	박건홍	30불
유인섭	20불	박기동	20불
원지준	20불	임영선	20불
남재현	20불	임광희	20불
Choe Chong Ung	50불	임소기	20불

### 『국산품 애용의 진실된 의미』

가정주부 김원경

얼마전 우리집 둘째꼬마의 성화에 못이겨 시내 J 스토아에서 어리이용 자전거를 하나 샀다. 완전조립품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을 할수밖에 없었다. 안내서를 펴놓고 조심조심 해나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아마 1000분지 1의 착오란 말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보다. 핸들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어 아무리 끼여 맞추어도 뒤로 가는 모양의 자전거였다. 할수없이 하나씩 풀어 다시 케이스속에 넣어 J 스토아에 가져다 줄 참이었다. 우연히 한 부품부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더욱 선명한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자전거메이커 D 제품의 글자가 선명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를 어찌야 하는가』 하고 말이다. 남편은 서슴치 않고 『한국제품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쯤시켜 다시는 이런 제품을 생산과정에서 없애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웬지 꼭 무슨죄를 짓는 기분이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먼저 번에도 무엇인가 샀다가 반품을 할때 그들은 나의 인적사항은 물론 반품사유를 상세히 적으며 『이 물건은 만든회사로 되돌아간다』라고 한말이 기억난다. 나는 잠시 생각해본다. 내가 어렸을적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때 거의가 매일 그림그리기, 웅변대회, 글짓기대회의 제목이 그저 한결같이 『국산품 애용』이었다. 무슨내용인지도 잘모르고 어린나이에 그림도 잘그렸고 글짓기도 꽤

잘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남의나라것을 사쓰지 말고 나의나라 물건을 사용하여 국내산업을 부강시켜야 한다고...

얼마되지 않은 미국 이민역사지만, 막상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자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느낄수 있었다. 한국에 살때는 과거 어렸을때의 국산품 애용이니 뭐니 하는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친구들과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외제화장품에다 외제그릇을 사됐으며 마치 외제를 써야만 기본체면이 서는듯이 커피마저도 외제를 마셔야 했고 남편도 외제라이트, 외제빅타이, 테니스 라켓까지도 외제를 사야만 했었다. 이유야 어찌됐던 미국땅에 와보니 분명히 모두가 『미제』였다. 모든것이 황홀하기도 했고 마음껏 써보자는 작은 욕망도 생기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여하튼 조그마한 욕망이 이루어진것도 사실이

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을뿐,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니 이것저것 미국제만 골라쓴다는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직장생활에 필요한 운동화를 사려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집 두 꼬마의 학교입고갈 바지를 사려면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남편의 와이셔츠 한장을 사려고봐도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미제』의 생각보다는 그토록 작은 우리나라에서 이곳 거대

## KRIK-DIAMOND CO.

다이아몬드 판매



- ※ 품질 보증서 첨부
- ※ 교포들에게 특별봉사

4th·Pike Bldg. #625  
623-2452

LEE'S TIRE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터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2 - 4449

한 미국에 물건을 팔아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상품을 뒤적이는것을 보았을때 『미제』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그저 한개라도 더 팔렸으면 하고 멀리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지작거리는 미국인 소비자들 볼때 마음이 조여지기까지 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국산품 애용』이다. 내가 어렸을때 그림도 그리고 웅변대회도 하던 국산품 애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하며 짧은동안 그저 『미제』에 미쳐서 날뛰던 처녀시절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거대한 미국땅에 조그마한 나의나라 한국에서 온국민이 열심히 만들어 팔고 또 다른물건도 새로 개발하여 미국땅에 팔붙이려는 노력을 이제 내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른것으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물건을 만들어 판것은 분명 내나라 내국민일진데, 아마 내친척 아니면 내친구의 친척이라도 손해는 분명히 보았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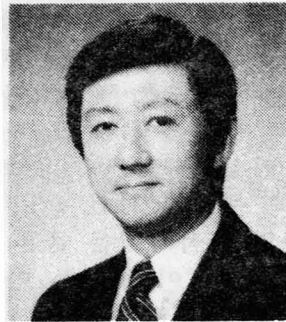
음속으로 미안하기도 했다.

내생각으로는 가정에서 쓰는 일용품 어느것 하나까지도 카메라의 렌즈까지도 무슨 용도에 쓰는 무슨물건이라도 그저 한국제만 팔아주자. 최근 시장에서 보면 한국제 외에 대만제, 홍콩제, 중국제, 싱가포르제가 한국제와 나란히 경쟁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저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맡겨져 팔려지는 한국상품보다는 우리교민 한사람 한사람이 그저 한국제만 열심히 팔아주었으면 한다. 양말 한켄레, 와이셔츠 한장이라도...그러면 그들은 또 한국에 제품을 주문하게 될것이고 그러노라면 우리나라 제품공장에서는 공장을 좀더 크게 가동하여 많이 만들어야 할것이다. 그러노라면 내나라 한국에도 돈이 벌려질 것이다. 그것은 내형제, 내친척, 내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라고 나는 감히 장담하고 싶다. 이것이 내어렸을적 『국산품 애용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 백기완 소아과

## 알러지과

### Family C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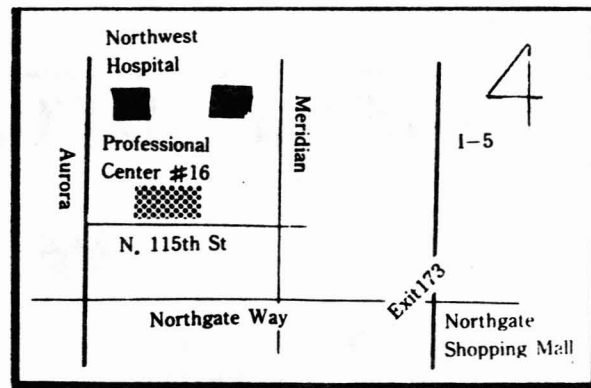
지난해동안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백소아과 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전반의 건강을 위하여 알러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14년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Family Doctor(가정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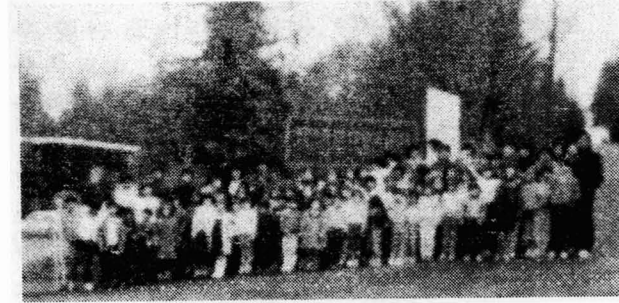
신생아과·소아과·알러지과·기관지천식·피부과·일반내과·위장병·관절염·고혈압·당뇨병·Minor Surgery·간단한 수술·화상·포경수술·찰과상·골절·응급환자치료

365-4533(24시간)



KIWAN PAIK, M.D.  
Northwest Hospital  
1570 N. 115th St, No 16  
Seattle, WA 98133

## 특집 인터뷰 : 한국학교를 찾아서(1)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부설 한국학교편 교장 김간난 교감 김정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 마지막 토요일(26일)한인장로교회내의 한국학교를 찾았다. 교회입구에 교회간판보다 더 선명한 한국학교 간판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 학교 사무실 문을 여니 여러선생들이 부산하게 움직였고 또 그들이 사용할 부교재(인쇄물) 만들기엔 바쁜것을 한눈으로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어렸을때 학교 교무실의 학적부등 복잡한 서류철 이상으로 서류함에 각종 서류가 꽂혀 있는것을 보아 이학교의 업무를 한눈으로 읽을수 있었다. 등사실에서 꾸부린 허리로 카피를 하고 계시는 김간난 교장선생을 만났다.

기자 : 이학교는 언제 설립됐으며 어떤동기로 설립됐는지 말씀 좀...

김교장 : 이민생활이 그러하듯이 바쁘고 정신수양 부족의 연속에서 사는게 우리의 운명이고 보면 최소한 내 자녀들에게는 그것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고 또 한국아닌 미국사회에서 분명한 『한국의 미국민』임을 그들에게 심어줄것이 필요해 교회의 배려속에 지난 83년 3월12일 개교식을 가졌지요.

기자 : 지금까지 학교를 비교적 성장속에서 이끌고 오셨는데 그간의 애로같은것은 없었는지요?

김교장 : 학생이 하나 둘이 아니고 이제는 150여명이 정기출석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나 당 교회에서 기독교정신아래 교육이라는 대체목아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

하며 어린것들이 『태극기』 『우리나라』를 쓰는것을 보면 그저 눈물이 나게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교육목적은 한글교육이 아니고 『한국민』이라고 목적을 가지고 한국역사, 지리, 고전무용, 태권도 등 한국인의 얼을 심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 교회내에 부설학교인데 학생의 부모님은 모두 교회분이신지요?

김교장 : 아닙니다. 우리교회 교인의 자녀뿐아니라 타교회, 불신자라도 관계하지 않고 입학할수가 있습니다.

김정태교감 : 현재의 우리학교 학생분포를 봐도 70% 이상이 우리교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자 : 현재 선생들은 몇분이나 되며 그들의 성의는 열성인지요?

김교장 : 보시다시피 목청이 아프도록 강의실에서 어린것들에게 열을 내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교사 17명 대부분이 이중언어교사로 근무하시며 각 분야에 재능있는분이 많아 학생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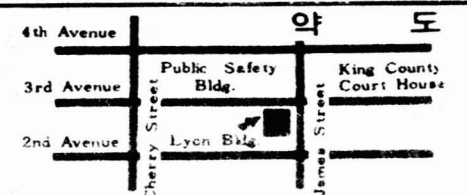
기자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같은것이 있으시면?

김교장 :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뿐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성인 영어반도 개설하여 이민생활의 부분적인 분야도 맡고 싶습니다.

이층에서는 참새들의 목소리같이 예쁜아이들의 합창이 들린다. 창문옆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강의하는 여자선생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으며 교문을 나섰다.

# K.P. 번역원

- \*사건조사, 법률처리 일선
- \*유능한 변호사 일선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Suite 303 Lyon Building Seattle, Washington 98104  
607 Third Avenue (206) 682-3480

## 청소년지도의 착안점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수십알의 밀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돌봐주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밀이 돌짜밭이나 포장된 길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길바닥이나 돌짜밭에 떨어지면 밀알은 말라 버리거나 새가 주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비옥한 땅에다 밀을 뿌려야 한다.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나의 밀알은 무럭무럭 자라서 수십알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다. 농부가 밀알의 잠재력을 알고 성장 발달하는 조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장해 줄때에 수확에 성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발달도 이와 비슷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그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고 보살펴줄때 건전하게 성장하게 된다. 농부가 밀을 키운다기보다는 밀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보살펴 주기만하면 된다. 성장발달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해줄때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각자에게 부여한 독특한 재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혹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는 음식을 먹어야하고 갈증을 해소해야하고 적당한 시간의 수면을 취해야한다. 너무 춥거나 더운곳에 오래있으면 우리 몸은 파괴된다. 동상에 걸리거나 열사병이 생기기도 한다. 공기를 들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수 없다. 이와같은 생리적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만 급급하고 혈안이 된다. 체면을 그토록 존중히 여기던 양반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뛰어넘어 남의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연문희박사 (UW 방문교수)

란 말도 있다. 이런 것을 볼때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보살펴주는 일을 청소년 지도의 가장 기본이다. 물론 생리적 욕구는 한번 충족하면 그것으로 족한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충족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면 인간의 관심은 그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두번째 조건은 인간의 안정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공포분위기에 처하면 건전하게 성장발달하지 못한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에서 어느정도 해방되어야 건전하게 자랄수 있다.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일은 제쳐 놓고 노력하게 된다.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인간은 위축된다. 사태를 파악하는데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긴장과 불안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한다. 위협물체나 공포의 대상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옳게 판단할수가 없다. 만약 청소년들이 선생님을 두려워 한다면 배우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 한다면 그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꾸중듣지 않으려고 신경쓰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과 구실을 일삼기도 한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자기방어에 전심전력을 투구하게 된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잘난체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다. 자신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남들을 헐뜯고 비방하기 쉽다. 안전감이 없으면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 성장하려 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긴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가정은 아늑하고 화목한 곳이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이 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안전감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나면 인간은 그 다음단계의 욕구 충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세번째 조건은 소속감, 사랑의 필요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여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야 안정을 누리게되고 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인간다워진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적은 기본단위이다. 온가족들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건전한 성격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형제자매가 여럿있는 집안에서 한 아이가 따돌림 받게 되거나 차별대우를 받게되면 그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든 사랑받아야 건전하게 성장한다. 친구가 없어서 오랫동안 외톨이로 생활하는 아이들은 잠정적인 문제아라 할만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남들과 어울릴줄 모르고 물위에 기름뜨듯이 걸도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민사회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나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아이들이 부모님 돈을 빼돌려 만화를 사서 친구들에게 선심을 쓰거나 껌이나 다른 음식을 사서 우정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 여러가지 문제행동을 동원해서라도 주목을 끌려고 한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수 있도록 자상하게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전학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속히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사귀며 어울릴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집단에서 이탈하는것이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기 쉬운것처럼 인간사회에서도 자기 사회에 융합하지 못하고 소외되면 낙오자가 되기 쉽다.

네째로 착안할 조건은 금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도와줄 일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낄수 있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다음단계인 금지와 자부심을 필요로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사들과 친구들에게서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래봐도 나는 좋은 학생이야, 성실한 학생이야,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사랑하는 존재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수 있으면 건전하게 성장하는 증거이다. 로버트 쉘러 목사님 주장대로 자기를 사랑할수 있는 인간이라야 타인을 사랑할수 있게된다.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수 있어야 안정감이 생긴다. 안정감이 있을때 인간은 성장할 준비가 된다. 진정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울감을 가지거나 오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자기를 사랑할수 있어야 한다.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만큼 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금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인간관계가 상호 협조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못느끼는 사람 즉 자기를 사랑할수 없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자녀들의 장점과 재능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개발해서 인정해 줄때에 우리 자녀들은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웃을 내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생리적 욕구를 보살펴 충족해주고, 안전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소속감과 금지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면 청소년들은 지적 호기심, 진리탐구, 미의창조, 질서의식, 가치관, 도덕의 탐구 등으로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실현하는 방향으로 성장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창조하실때는 그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야 된다고 믿는다. 마틴 부버

가 주장하는대로 모든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존재요, 이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마다 자기가 타고난 잠재능력 재능을 깨닫고 실현하는것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이 될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청소년들을 인도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욕심대로 주장하다보면 청소년들은 시들거나 부러지거나 찢어질때가 있다.

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될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감을 도모해주기 위하여

1. 부부싸움과 부부사이의 갈등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것.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하다.
2. 차별(때리기)을 삼가고 고향지르는 일을 자제할것
3. 꾸중, 훈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이해하도록 노력할것
4.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안해지기 쉬운점을 기억할것
5. 다른사람과 비교하면 열등의식과 죄책감이 생기기 쉬운점을 이해할것
6. 결과만 따지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고 이해할것
7. 부정적인 감을 억제하지 말고 경청하고 이해해줄것

8.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율을 고집하지 말것
9. 실수를 통하여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므로 잘못을 이해하고 격려할것

\* 소속감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1. 차별대우(남·여 사이, 차남·장남·막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할것
2.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일
3. 온 집안식구, 교회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종종 가질것
4. 집안일을 함께 알고 지내는일

5. 가정의 일을 분담하여 모두 참여의식을 갖게할 것

\* 금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1. 가정사를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는일
2. 식구들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여 인정해줄것
3. 다른사람과 다른점을 칭찬하고 인정해줄 것
4. 의견의 일치를 강요하지 말것
5.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고 실천할것
6. 저마다 이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줄것
7.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못하고 이해와 사랑을 먹고 산다는것을 기억할것

#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776-8512

헤더럴웨이

수·금(10시~7시)

☎838-3180·927-4996

## 우리들의 모임

### 『시애틀 한인축구회』를 찾아서

시애틀 한인축구회 회장 심상국



정확한 시각 7시20분. 아직 새벽이 채가 시지 않은 어두움속에 멀리서 한두명씩 유니폼을 입은 회원들이 모여든다. 축축한 새벽안개가 몸에 젖어든다. 크게 심호흡을 하며 움치려진 가슴과 어깨를 펴본다. 한쪽에는 벌써 서너명이 성급하게 공을 굴리기 시작한다.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마운트 테라스 하이스쿨』에는 서너개의 축구 구장이 있다. 노장팀(40세이상) 소장팀(40세이하) 청소년팀(20세에서 30세)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서로서로 각 운동장으로 나간다. 얼마후에 음료수를 준비해온 회장·부회장을 만날수 있었다.

기자 : 한인축구회의 설립동기 및 취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심회장 : 특별한 동기야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은 축구를 다들 좋아하고 전체운동이니 첫째로 심신단련, 특히 새벽공기는 참 좋은것 같더군요. 또 이민생활을 하다보니 누구나가 외롭고 서로 의지하고 싶고 애경사를 같이 나누는것이 필요해서 처음 발족했다고 할수 있죠.

기자 : 공을 차는 모습을 보니 몇분은 프로선수같이 날쌔고 잘 다루는데 또 교민사회내에 운동(축구) 시합은 자주 있는지요?

심회장 : 네, 축구를 좋아하는분 아니라 몇몇회원은 과거 한국에서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한분도 있고 해병대 축구단에서

직접 축구한 경력자도 있습니다. 축구시합은 시애틀에 산재되어있는 축구팀이 몇개 있는데 서로 초대해가며 친선경기가 있습니다.

기자 : 현재 회원는 몇명 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같은것이 있는지요?

변부회장 : 현재는 약 45명정도의 인원이며 특히 이들은 시애틀 각지에서(타코마·벨뷰) 오기때문에 더욱 축구에 대한 마음이 강해집니다. 현재로서는 큰 사업계획은 없으나 지난번 저희들이 준비한 『경노잔치』를 성의껏 치뤘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는 일요일 운동을 끝내고 휴지백을 준비하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공원을 순회하며 휴지를 줍기도 하지요.

기자 :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드신것 같은데 금년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모씨·이모씨 : 저는 54살이고 이분 48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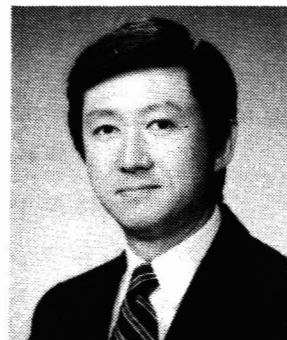
기자 : 나이드신분으로서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모씨 : 처음에는 젊은분들과 같이 뛰자니 힘들고 지쳤으나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해냅니다. 아침운동은 누구에게나 특히 이민생활에 찌든 육신은 가다듬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멀리서 후반전 시작하는 호각소리가 들린다. 날씬한(?) 체격의 심회장이 운동장으로 달려간다.

### 알러지 질환(II)

#### 두드레기(Urticaria, Hives)



소아과 전문의 백기완

알러지 반응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중의 하나인 두드레기는 인구의 약 2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서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정상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피부가 가렵고,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의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부풀어 오르는 특수한 증상을 나타내며,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음식물을 섭취한후에 수시간내에 나타난다. 생선, 조개류, 상한음식, 의약품, 방부제, 색소 등의 섭취, 혹은 독풀(오탁나무 등), 곤충(벌) 등의 피부접촉, 기생충 감염, 바이러스 감염,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감염 등에 의해서도 두드레기 반응이 나타난다. 특히 성인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찬온도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로 Cold Urticaria 가 있으며 얼음물을 마실때 입술이 가렵고 부풀어 오르거나 겨울철에 외출하면 두드레기가 나는 경우를 볼수 있다. 이러한 체질을 가

진 사람이 찬물에서 수영을 할 경우 심한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며 드물게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질환중에는 혈액에 이상이 있는 혈액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외에 드물게 볼수있는 내과질환으로 인한 두드레기는 여러종류의 암, 혹은 바이러스 감염, 말초혈관염, 갑상선 항진 등을 볼수 있으며 선천성 두드레기 혹은 여러가지 정서장애와 관련된 정신 신경성 두드레기 등이 있다.

특히 여성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태양 알러지(Solar Urticaria)는 여름철에 자외선의 노출이 많은 경우에 볼수 있는 질환이며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에만 두드레기 반응이 나타난다. 치료는 확실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단한 치료로서 완전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LIM SHIL 임실정 RESTAURANT

안녕 하십니까?

한일각과 영미정에서 일하던 임아주머니 입니다.

이곳 Lake City 에 순한국식 음식점 “임실정”을

막 개업하였습니다. 장소는 작고 협소하지만 음식맛은

씨애틀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일차 오셔서 맛을 비교하세요.

감사합니다.

13320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206) 364-0784

### 편집후기

1. 격월로 나오는 관계로 모든 행사내용 및 보도가 늦어져 소식이라기 보다는 결과 보고가 되는 느낌이 든다. 여건이 허락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나오게 되면 조금 빠른 뉴스도 될수 있으련만...
2.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기우는가 보다. 내년에는 좀더 내용있고 또 교민에게 읽혀지는 한인회보가 되어야 할텐데 마음뿐이다.
3. 금년 한해 『한인회보』를 만드는데 도와 주신 한국일보 사진식자부와 부림인쇄소에 또 한인주소명부(회보발송용 주소록)를 매년 만들어주신 김동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4. 매년 발행호수마다 주책없이(?) 『한인회를 성원합시다』『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를 어쩍시다』라고 호소문구를 써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문구가 실리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봅시다.
5. 욕심같으면 내년에는 한인회관 사무실용으로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샀으면... 계속 쫓겨다니는 한인회 사무실 신세가 처량해서...
6. 원고료(고료) 없는 원고청탁에 열심으로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7. 새로 신설된 『우리들의 모임』『문답으로 알아본 생활상식』란에 우리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모임 등을 제보해 주시면 지면에 관계없이 실어드리겠으며 『문답란』에도 질의하여 주시면 전문인에게 의뢰, 본인에게 통보는 물론 회보에 기재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한인회는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인회는 바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10명이 100불씩 내서 운영되는것보다 1,000명이 10불씩 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1. 회 비 : 1인 10불(1년)

1세대 20불(1년)

2. 발송주소 : P.O.Box 24992 Seattle, WA 98134  
Korean Association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다같이 성원합시다. 감사합니다.

##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숭선수법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취호

한인회보 1985년 제 4호

발행인 : 오준길

편집인 · 김재홍

SEATTLE-WASHINGTON STATE  
KORFAN ASSOCIATION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 한인회보 안내

한인회보는 교포사회의 매스 미디어로서의 사명을 감당코 교민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반력하는 여러분들의 회보입니다.

교포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소식을 바르게 신속히 전달됨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매스 프로모션을 이루도록 교민사회의 교각역활을 담당하고 있어오니 많은이용을 바랍니다.

교민각자의 구매활동과 상공회, 교계, 언론기관 각 기관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시면 속히 회보에 기재함으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지역 교민으로써 아직까지 한인회보를 받지 못하신분은 즉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회보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사하신 분은 새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보 우편종류는 원웨이(One Way) 임으로 새주소를 찾아가지 않으며 주소불명도 본한인회 사무실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한인회보는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현대식품

\*집에서 만든 찹쌀고추장 · 조선간장 · 된장

\*소문난 김치 · 밀반찬류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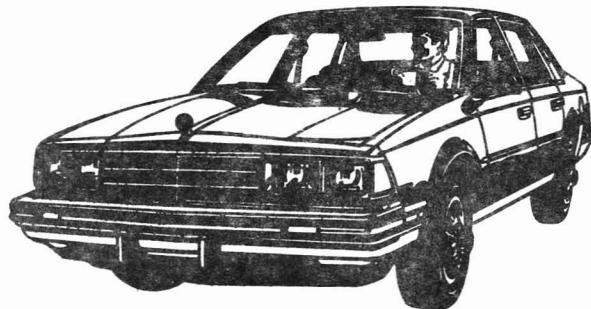
**762-4792**

**10402 16th Ave S.W.  
Seattle, WA 98146**

## 101 자동차 바디숍

완전무결은 101자동차 바디숍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고 발생시 휘어진 차체를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하여 101 바디숍에서는 최신 장비와 충분한 기술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자동차를 완전하게 고쳐드립니다.



INSURANCE WORK · 바디와 페인트 · UNIBODY WORK · 책임수리

**1005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Phone: 525-5778(공장), 789-2655(집)